

지역 간 갈등 불러온 정책들, 지자체서 잇따라 재추진

전주완주 통합·새만금 관할권, 총선 이슈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오랜기간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온 정책들을 지자체가 잇따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가 오는 총선에서 지역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남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 전주시 1호 공약으로서 시민과 한 약속"이라며 "정주·정원 통합과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충북과 경남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전주·완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는 1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 권한을 가지고 전북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힘차게 출발한다"면서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완주 통합 필요" 강조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의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주·완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해 각 지역에 미치는 여향을 살피며 통합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1997년과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다.

전주시가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전주·완주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총선 후보군들의 공약과 비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의 경우 대부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총선 후보군들은 추진 찬성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완주의 경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역 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김제·부안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 내 최대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연내 설립' 뜻을 펼치면서다.

현재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은 관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과 김제의 기초단체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철저히 임해달라"

김관영 도지사, 방미 앞두고 "복귀하는 대로 준비상황 점검"

정부 경제정책발표 분석·반영, 특구선정 전략추진 등도 당부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준비와 데이터 전환 등 행정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에 나선다.

이에 앞선 이날 회의에서 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출장에서 복귀하는 대로 준비상황을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할 것이다. 출장 중에는 양 부지사와 실국장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어질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도 치밀하게 분석해 전북도의 정책추진에 반영 하라고 덧붙였다.

게 분석해 전북도의 정책추진에 반영 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사무식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다듯이 도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기업유치 등 각 실국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전주시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등 특구를 통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특구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추진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이재명 헬기이송, 지역 의료계 무시한 특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지역서 진료 가능 환자 지역의료기관 이용 인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전라북도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닥터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사회는 우선 "이 대표 피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하여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그렇게 이송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의료전달 시스템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대야망인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외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번 경우처럼 우리나라 공인 최고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하는 모습은 지역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는 지

전북의사회 성명 발표

역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사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포함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을 재고해 과감한 재정지원 및 투자하라고도 촉구했다. /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축하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하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바라보며 성장한 것은 축복"

이낙연 전 총리,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맞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시대는 김 대통령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 받았다"고 밝혔다.



문의 꿈을 함께 꾸었고 그 분의 길을 따라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의 고난에 함께 아팠고 그 분의 성취에 함께 환호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축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1970년 제가 시골에서 막 상경한 대학 1학년생이었을 때 그 분은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셨다"며 "2000년 그 분이 대통령으로 일하고 계셨을 때, 저는 그 분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렇게 김 대통령을 바라보고 배우며 성장해 온 제 삶도 축복 받은 것이었다"며 "대통령께 더 배우겠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고창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총 3건 의안 의결...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도 가결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새해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5일에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공공청사 부지(사유지) 공유재산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은 원안가결했다.

더불어 조규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경신 의원, 조규철 의원, 조민규 의원, 차남준 의원, 이선덕 의원 등 군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정호 의장은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한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편안한 오늘과 고창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甲辰年

희망으로 속아도른다

2024

이환위리 (以患爲利) :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이르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회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2024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간	회의	주요 내용	비고
제261회 임시회	1.24.(수)~2.5.(월)	13	• 부의안건 처리 •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집행부(부) 신년인사회 1월~2월중 * 졸업식: 1월 초, 2월 초 * 설 연휴: 2.9~2.12.	
제262회 임시회	3.5.(화)~3.14.(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5.31.까지 의회에 결산서 등 제출	
제263회 임시회	4.16.(화)~4.19.(금)	4	• 부의안건 처리 * 국회의원 선거: 4.10.	
제264회 제1차 정례회	6.11.(화)~6.18.(화)	8	• 부의안건 처리 • 2023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저축 승인	
제265회 임시회	6.27.(목)~6.28.(금)	2	• 제9대 후보기 원 구성	
제266회 임시회	7.4.(목)~7.16.(화)	13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67회 임시회	8.27.(화)~9.5.(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추석연휴: 9.15.~9.18.	
제268회 임시회	10.15.(화)~10.25.(금)	11	• 부의안건 처리 • 2024 업무실적 및 2025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글날: 10.9. 10월초: 시간여행축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1.13.(수)~12.20.(금)	38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9월간) •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 회의일수: 9회 / 109일(정례회 46일, 임시회 63일)
* 본 계획(안)은 의회 일정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